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

김 영 주* · 윤 재 근**

대진대학교

〈요 약〉

전 세계 인구의 84퍼센트(2009년 말 기준 57억명)가 조직적 종교의 종교인이라는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의 보고는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수스(Homo religiosus; 종교적 인간)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모든 종교는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 분쟁의 배면에는 종교적 갈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로 이하여 종교에 대한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종교인의 숫자가 10명 중 8명 이상이라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증폭되는 종교에 대한 불신은 개별 종교전통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하기에 충분하다. 종교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재의 종교가 위기이며, 이 위기가 어디서 오는 가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함을 반증한다.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비전을 ‘종교의 본질’에서 찾고자 한다. 종교는 종교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현대종교는 종교본연의 모습에 너무 많은 변용을 가져와 종교본연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관점이다. 이를 위해 『종교교육연구』를 통해 연구되어진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본에 충실함’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현장에서의 종교교육에 적용하였다.

종교의 본질은 희생과 봉사이며 베품과 나눔이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다. 인간과 절대자와의 관계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우주질서를 재편하고 만민평화를 추구하는 최고신이 일신의 복을 바라는 기복의 대상이기를 바라는 자의적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신관의 정립은 종교 개창자가 추구했던 종교적 이상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이며, 종교본연의 모습을 회복한 참다운 종교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심주제어: 대순사상, 종교교육, 중산, 상생, 인존

* 제1저자: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 교신저자: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I. 들어가며

호모 펠리기오수스(Homo religiosus; 종교적 인간), 인간을 지칭하는 수많은 학명 가운데 하나이지만 지금처럼 이 학명이 인간을 잘 대변하는 시대도 흔치 않을 것이다.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84퍼센트(2009년 말 기준 57억명)가 조직된 종교에 속해 있다고 한다. 카톨릭 신도 절반을 포함해서 기독교가 20억 명, 무슬림은 10억이 넘고, 힌두교는 8억 5천만 명, 불교는 거의 4억 명이며, 민속종교가 남은 수억 명의 신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만여 개의 종교가 존재한다.¹⁾ 10명 중 8명 이상이 종교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로운 세상은 요원하기만 하다. 오히려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종교가 개입됨으로 인해 현대인으로 하여금 종교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종교나 종교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추구하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종교인 모두의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종교인구가 2012년에 비해 2014년에 750만 명이나 감소한 가운데 종교를 다룬 영화는 오히려 제작비 대비 수익 30배를 달성할 만큼 흥행을 거뒀다는 내용의 기사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 기자는 미국의 종교인구가 750여 만명이나 줄었는데 신에 대한 영화가 흥행을 기록했다는 것은 ‘신’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에 이 궁금증이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결과로 분석한다.²⁾ 그리고 천지일보의 기획기사인 ‘한국종교 30년 어떤 변화가’의 시리즈를 살펴보면, 1. 주머니 털어 ‘현금’낸 교인...배불리는 목회자.³⁾를 시작으로 2. 십일조는 교인의무? 현금 강조하는 개신교회.⁴⁾ 3. 신 가르침보다는 자기행복 찾는 교인 늘어.⁵⁾ 4. 경전에 나온 ‘신·창조·심판’ 안 믿는다.⁶⁾ 5. ‘교회·성당·사찰’ 거부하는 종교인 늘어⁷⁾ 6. 돈·권력 집착하는 무늬만 성직자 늘어 ‘꼴머리’.⁸⁾ 7. 신뢰 떨어진 종교계...‘종교 참뜻 찾으라’.⁹⁾ 8. “‘종교인 본래의 뜻 벗어나’ 레드카드 든 국민들”에서 맹목적 믿음·신앙 강요는 2030세대들의 탈종교현상을 부추길 것이며, 이는 종교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¹⁰⁾로 끝을 맺고 있다. 한국종교계가 직면한 일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종교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종교에서

1) Michael Shermer, *The Believing Brain*, 김소희, 『믿음의 탄생』(서울: 한국물가정보, 2014), 229쪽.

2)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367>

3)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673>

4)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269>

5)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618>

6)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44>

7)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599>

8)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305>

9)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655>

10)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164>

이탈하고 있는 2030의 젊은 층이 가는 곳이 어디인가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의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나’ 새로운 ‘믿음’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서 인문학공부·명상·요가 등을 찾아 제도권 종교가 아닌 곳에서 정신건강을 찾고 삶의 위안을 얻는다고 한다.¹¹⁾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믿음을 찾아 나섰지만 이러한 믿음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종교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교에 대해 가지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성숙한 신앙을 담아내는 것이 전제될 때 말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세계, 이상적 인간 등은 언제나 당시대의 사람들에게 종교가 제시하는 비전이 되었다. 그러나 그 비전은 성취되지 않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 한다. 본 연구자는 새로운 비전과 관련해서 ‘종교의 본질’에 주목하고자 한다. 모든 종교에서 지향하는 이상세계와 이상적 인간이 비전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종교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기본에 충실함’에서 찾을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교육연구』를 통해 연구되어진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을 분석하여 이를 관통하는 핵심사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33편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을 통하여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학교와 현장으로 나누어서 ‘기본에 충실함’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고자 하였다. 학교에서의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새로운 비전은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의 종교관련 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과 교양교육으로서 진행되는 『대순사상의 이해』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종교교육의 비전은 『종교교육연구』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사상의 재정립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Ⅱ. 『종교교육학연구』를 통해 본 대순진리회 종교교육의 개괄

1995년 8월 창립기념 학술총회 특집호로 1권¹²⁾이 발행된 『종교교육학연구』는 현재 47권의 학회지를 발간해 오고 있다. 47권이 발행되는 동안 종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기획논문 21편과 연구논문 12편이 발표되었다. 기획논문부터 간략히 살펴보면, 1996년부터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윤재근은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1996)¹³⁾에서 대순사상에서 지향하는 후천의 인간관념인 ‘인존사상’을 통해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적인 모델을 표현함과

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02157175&code=960206

12) 박선영 외, 『종교교육학연구』제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5).

13)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제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동시에 인존사상이 제시하는 교육적 비전을 검토하였으며,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1999)¹⁴⁾에서 대순진리회의 종교지도자 교육의 문제를 다루었다. 대순진리회에 있어서의 종교교육에서는 ‘종교적 인격완성을 위한 자기 계발로서의 공부(工夫)와 신도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수강(授講)과 연수(研修)를 살펴봄과 아울러 교역자 양성과정으로 자리매김한 대순종학과의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대순종학과 졸업생이 대순진리회에서 일정 정도의 종교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시스템 결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2009)¹⁵⁾에서 욕망은 무언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핍의 상태이며 이는 또 다른 욕구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하는 양상을 띠는다고 하였다. 증산은 인간정서의 불만족 상태를 야기하는 욕망의 근본원인을 원(冤)에 두고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삼계에 걸쳐 두루 나타나는 현상인 바, 이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2010)¹⁶⁾에서는 종교교육은 종교의 보편적 진리와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전인적 교육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순진리회 종립학교 현황과 종교교육을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종교 간의 대화와 공존 가능성에 있음을 논의하였고,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2011)¹⁷⁾에서 종교는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민족적 정체성을 포괄하는 문화현상인 바, 다문화사회에서 세계화와 한국화를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기 위한 상생과 공존의 지혜를 대순사상을 통해 찾고자 하였다.

김순자는 「대순진리회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1997)¹⁸⁾에서 사회교육의 기능을 사회문화적 변동에 따른 진화론적 기능, 구조기능론적 기능, 갈등론적 기능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대순진리회의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 교육적인 기능을 논하였다. 개인 및 집단교육의 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깨닫게 하여 참여의식, 인간 개인의 의식화 촉진으로 올바른 비판의식을 고취시키며 인간적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전통가정교육과 대순사상」(2000)¹⁹⁾에서 대순사상 속에 담겨진 전통교육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현재 대순진리회 도인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문제점을

14)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8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173-195쪽.

15) 윤재근,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 『종교교육학연구』제3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61-74쪽.

16) 윤재근,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제3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73-105쪽.

17) 윤재근,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제36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91-112쪽.

18) 김순자, 「대순진리회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 『종교교육학연구』제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177-193쪽.

19) 김순자, 「한국 전통가정교육과 대순사상」, 『종교교육학연구』제10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127-157쪽.

지적함과 아울러 회관을 활용한 유아 보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순사상과 아동교육」(2009)²⁰⁾에서는 대순사상의 아동교육을 설명함에 있어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은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여 교육하기 보다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속에서 통합적인 인격교육을 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 아동의 정의적 행동특성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인성교육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유승중은 「대순진리회와 청소년의 심성교육」(1998)²¹⁾에서 일심(一心)을 중심으로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심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수련과 공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윤기봉은 「대순사상의 종교학적 이해-개벽사상을 중심으로」(1998)²²⁾에서 조선 말엽의 신종교 발생은 현실사회에 대한 개혁적 의식이 함의되어 있었던 바, 개벽사상을 통하여 중산이 지향하고자 하였던 종교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득환은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1999)²³⁾에서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기능은 교의 중심의 이상적 기능과 사회적 활동과 봉사를 통한 실천적 기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박희봉은 「대순진리회의 정치사상-서양정치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2002)²⁴⁾에서 이상세계는 현실세계의 극복이 과제이며, 후천개벽이 단순히 절대자의 역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속될 수 있는 것임을 피력하였다.

고남식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2003)²⁵⁾에서 19세기말의 정체성 혼란은 세계가 직면한 문제였던 바, 중산은 해원과 조화의 원리가 내재된 천지공사를 통해 조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삼계(三界)의 통합적 사유인 천지공사는 내부의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김영주는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2013)²⁶⁾에서 대안교육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대안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대순진리회 대안교육의 사상적 배경을 해원상생과 인존사상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한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2013)²⁷⁾에서는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음공

20) 김순자, 「대순사상과 아동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30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91-115쪽.

21) 유승중, 「대순진리회와 청소년의 심성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5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137-154쪽.

22) 윤기봉, 「대순사상의 종교학적 이해-개벽사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7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103-114쪽.

23) 구득환,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 『종교교육학연구』제9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133-148쪽.

24) 박희봉, 「대순진리회 정치사상-서양정치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15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153-171쪽.

25) 고남식, 「한국인의 정체성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16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71-85쪽.

26) 김영주,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41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21-44쪽.

27) 김영주,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제43권(익산: 한국종교교육

부를 유·무형의 종교적 행위로 나누어서 설명한 후, 마음공부가 실제 행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2014)²⁸⁾에서 생명에 대한 인식문제는 결국은 인성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올바른 인성을 배양하기 위한 종교심 함양의 문제에 집중하였고, 대순진리회의 실천덕목으로서의 훈회(訓誨)를 통한 생명윤리의 직접적인 실천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김승남은 「성과 종교교육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관점과 실제」(2013)²⁹⁾에서 올바른 성문화 형성을 위한 일환으로 대순사상의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윤재근·김영주는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 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2014)³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은 청소년이라는 개인적 측면의 치유와 교육이라는 사회적 측면의 치유의 교집합적 성격을 지니므로,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치유 프로그램으로서의 청소년 캠프 현황을 바탕으로 청소년 캠프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논문의 경우, 윤기봉은 「한국 신종교의 이상적 인간관」(2006)³¹⁾에서 신종교 교조들의 현실사회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천개벽사상을 살펴보고, 종교적 이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증산의 수행체계에 있어 성·경의 의미」(2008)³²⁾에서는 증산의 수행체계 안에서의 성·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율곡의 성과 퇴계의 경의 비교 검토를 통해 성경의 의미가 증산에 와서 어떻게 승화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증산 강일순의 인권사상」(2010)³³⁾에서 증산의 인권사상은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과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 인권이 ‘인간존중’의 메시지임과 아울러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호존중의 의미가 내재하고 있음을 구명하였으며, 「증산사상에서의 근대성 해석문제 - 계급제도의 붕괴와 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2010)³⁴⁾에서 한국 신종교운동은 타력적인 사회변동을 거부하고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사회변동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증

학회, 2013), 145-168쪽.

28) 김영주,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45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103-125쪽.

29) 김승남, 「성과 종교교육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관점과 실제」, 『종교교육학연구』제42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27-48쪽.

30) 윤재근·김영주,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 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 『종교교육학연구』제46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1-25쪽.

31) 윤기봉, 「한국 신종교의 이상적 인간관」, 『종교교육학연구』제2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243-256쪽.

32) 윤기봉, 「증산의 수행체계에 있어 성·경의 의미」, 『종교교육학연구』제28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123-139쪽.

33) 윤기봉, 「증산 강일순의 인권사상」, 『종교교육학연구』제3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147-161쪽.

34) 윤기봉, 「증산사상에서의 근대성 해석문제 - 계급제도의 붕괴와 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3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143-159쪽.

산의 사상체계를 중심으로 근대성과 혁신의 논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윤재근은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 - 인존(人尊)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2007)³⁵⁾에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제학자들의 인간학적 논의를 해석의 틀로 하여 인간의 진정성을 파악하고 대순사상이 제시하는 인존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인존사상이 내포하는 교육적 차원과 더불어 종교적으로 완성된 존재로서의 인존의 관념이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신종교 개창자의 탄생설화와 종교문화」(2010)³⁶⁾에서 한국 신종교의 정체성을 종교 개창자의 탄생설화를 매개로 하여 한국 신종교 개창자들의 탄생설화에 내포된 당시 기층민중들의 삶의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고찰하였고, 「한국 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 대순사상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2010)³⁷⁾에서는 전통문화의 저변에 흐르고 있던 도교적 사유에 주목하고 신종교 발생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조선후기 하층민중의 소요자재(逍遙自在)하는 삶의 회구를 신종교 개창자들이 지녔던 도교적 사유체계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연구들을 관통하는 중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천지공사³⁸⁾와 해원,³⁹⁾ 인존⁴⁰⁾ 사상이 그것이다. 중요도에 따라 용어 설명에서부터 논문제

35) 윤재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 - 인존(人尊)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2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245-263쪽.

36) 윤재근, 「한국 신종교 개창자의 탄생설화와 종교문화」, 『종교교육학연구』제3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191-209쪽.

37) 윤재근, 「한국 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 대순사상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33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151-168쪽.

38) 윤기봉, 「대순사상의 종교학적 이해 - 개벽사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7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107-112.; 박희봉, 「대순진리회 정치사상 - 서양정치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15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163쪽.; 고남식, 「한국인의 정체성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16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73쪽.; 윤기봉, 「한국 신종교의 이상적 인간관」, 『종교교육학연구』제2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251쪽.; 윤재근,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제36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105쪽.; 윤재근, 「한국 신종교 개창자의 탄생설화와 종교문화」, 『종교교육학연구』제3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205쪽.; 윤재근·김영주,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 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 『종교교육학연구』제46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5쪽.

39) 김순자, 「대순진리회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 『종교교육학연구』제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187-189쪽.; 구득환,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 『종교교육학연구』제9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137-138쪽.; 김순자, 「한국 전통가정교육과 대순사상」, 『종교교육학연구』제10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146-154쪽.; 박희봉, 「대순진리회 정치사상-서양정치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15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160-162쪽.; 김순자, 「대순사상과 아동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30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96-103쪽.; 윤재근,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 『종교교육학연구』제3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67-70쪽.; 김영주,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41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26-30쪽.; 김승남, 「성과 종교교육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관점과 실제」, 『종교교육학연구』제42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36쪽.; 김영주,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45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112-113쪽.

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견되는 이들 사상이 대부분의 연구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는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각각의 주제에 적합하게 적용되어 연구된다는 것은 각각의 사상에는 독특한 논리구조가 내재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천지공사가 우주질서의 재편이 가능한 최고신의 관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신관의 정립이 가능하며 증산 재세시의 주변적 요인을 참고한다면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세계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안에 내재된 해원상생의 원리를 통하여 천지공사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해원상생의 실천에 의해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 된 인존을 실현하고 대순사상에서 지향하는 종교적 이상세계인 후천선경에서 살아갈 인간의 모습을 조망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III.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문제점

1. 전공으로서의 종교교육

대진대학교는 1995년 대순종학과(大巡宗學科)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순종학과는 본교의 설립모체인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이념에 따라 국가와 인류평화에 기여할 교역자를 양성하고, 대순진리 및 대순사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동양사상의 원류회복과 한국사상의 세계화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⁴¹⁾ 학과 설립 당시 모집정원이 40명이었던 대순종학과는 1999년 모집단위의 조정으로 모집정원이 30명으로 변경되었으며 2004년 8월 31일부로 종교문화학부(대순종학전공, 종교문화전공)로 편제가 변경되었다.⁴²⁾ 2010년에는 전공의 심화 발전을 목적으로 학부에서 단일

40)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제2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유승중, 「대순진리회와 청소년의 심성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5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144쪽.; 윤기봉, 「대순사상의 종교학적 이해 - 개혁사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7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113쪽.; 구득환,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 『종교교육학연구』제9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137-138쪽.; 김순자, 「한국 전통가정교육과 대순사상」, 『종교교육학연구』제10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144-146쪽.; 박희봉, 「대순진리회 정치사상 - 서양정치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15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160-162쪽.; 김순자, 「대순사상과 아동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30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95-96쪽.; 윤재근,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 『종교교육학연구』제3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70-71쪽.; 윤재근,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제36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105쪽.; 김영주,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41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30-32쪽.; 김승남, 「성과 종교교육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관점과 실제」, 『종교교육학연구』제42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32-33쪽.

41) 대진대학교 5년사 편찬위원회, 『대진대학교 5년사:1992-1997』(경기포천: 대진대학교, 1997), 413-414쪽.

42) 대진대학교 15년사 편찬위원회, 『대진대학교 15년사:1992-2007』(경기포천: 대진대학교, 2007), 137쪽.

학과 편제로 변경하여 대순종학과와 종교문화학과를 각각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⁴³⁾ 양 학과 모두는 현재까지 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교과과정이 개편되었던 바, 그 내용을 표를 통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순종학과 교육과정(1995~1997)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1	전필	대순종학개론	3	3	0		
	2	전필	동양종교의 이해				3	3 0
2	1	전필	대순사상 I	3	3	0		
			전경서설	3	3	0		
		전선	대순신관	3	3	0		
			유교철학	3	3	0		
			불교철학	3	3	0		
			종교사	3	3	0		
	2	전필	대순사상 II				3	3 0
			대순종단사				3	3 0
		전선	대순상제관				3	3 0
			전경강독 I				3	3 0
			도교철학				3	3 0
			교부철학				3	3 0
			한국신종교사				3	3 0
3	1	전필	천지공사론	3	3	0		
			동양종교윤리	3	3	0		
		전선	전경강독 II	3	3	0		
			음양합덕론	3	3	0		
			신인조화론	3	3	0		
			종도론	3	3	0		
	2	전필	대순종지론				3	3 0
			대순윤리학				3	3 0
		전선	해원상생론				3	3 0
			도통진경론				3	3 0
			대순수도론 I				3	3 0
			개벽론				3	3 0
			대순종학교육론				3	3 0
4	1	전선	대순수도론 II	3	3	0		
			포덕교화방법론	3	3	0		
			대순전경특강	3	3	0		
			비교종교학	3	3	0		
	2	전선	종무행정론				3	3 0
			대순의례실수				3	3 0
			대순철학특강				3	3 0
			민간신앙특강				3	3 0
			역사상				3	3 0

43) 대진대학교 20년사 편찬위원회, 『대진대학교 20년사:1992-2012』(경기포천: 대진대학교, 2012), 217-219쪽.

〈표 2〉 대순종학과 교육과정(1998~2004)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1	전필	3	3	0			
		전선	3	3	0			
	2	전선				3	3	0
		한국종교사상				3	3	0
2	1	전필	3	3	0			
		대순신관	3	3	0			
		종교사	3	3	0			
		불교사상사	3	3	0			
		대순종단사	3	3	0			
		수도입문	3	3	0			
		종지론				3	3	0
	2	전선				3	3	0
		대순상제관				3	3	0
		도교사상사				3	3	0
		한국신종교론				3	3	0
		전경강독				3	3	0
		수도실수				3	3	0
3	1	전필	3	3	0			
		유교사상사	3	3	0			
		개벽론	3	3	0			
		천지공사론	3	3	0			
	2	전선				3	3	0
		대순종학교육론				3	3	0
		종교심리학				3	3	0
		대순인간관				3	3	0
		종교수행론				3	3	0
		포덕교화방법론				3	3	0
4	1	전필	3	3	0			
		경전해제	3	3	0			
		종무행정론	3	3	0			
	2	전선				3	3	0
		역학특강				3	3	0
		한국종교특강				3	3	0

〈표 3〉 종교문화학부 교육과정(2005~2009)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1	전필	3	3	0			
		전선	3	3	0			
	2	전선				3	3	0
		동양종교의 이해 한국종교사상				3	3	0
2	1	전필	3	3	0			
		전선	3	3	0			
		종교사	3	3	0			
		불교사상사	3	3	0			
		수도입문	3	3	0			
	2	전선	3	3	0			
		대순신앙론	3	3	0			
		전필				3	3	0
		종지론				3	3	0
		도교사상사				3	3	0
		한국신종교론				3	3	0
		전경강독				3	3	0
		수도실수				3	3	0
3	1	전필	3	3	0			
		전선	3	3	0			
		동양종교윤리	3	3	0			
		대순의례실수	3	3	0			
		유교사상사	3	3	0			
	2	전선	3	3	0			
		개벽론	3	3	0			
		천지공사론	3	3	0			
		대순종학교육론				3	3	0
		종교심리학				3	3	0
		대순인간관				3	3	0
		종교수행론				3	3	0
		대순사상과 신의세계				3	3	0
4	1	전필	3	3	0			
		전선	3	3	0			
		경전해제	3	3	0			
		종무행정론	3	3	0			
	2	전선	3	3	0			
		역학특강				3	3	0
		한국종교특강				3	3	0
		비교종교학				3	3	0

〈표 4〉 대순종학과 교육과정(2010~2011)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1	전필	대순종학원론	3	3	0			
			한자, 한문입문	3	3	0			
			한국예의문화원론	3	3	0			
	2	전선	대순사회봉사Ⅰ	1	0	2			
		전필	대순신앙론						
			초급한문						
			생활예절론						
전선	대순사회봉사Ⅱ								
2	1	전필	전경교의론	3	3	0			
		전선	구천상제론						
			중급한문						
			공통예절론						
			실용영문법						
			대순사회봉사Ⅲ						
	2	전필	대순종지론			3	3	0	
			대순종단사			3	3	0	
		전선	세계사상사Ⅰ			3	3	0	
			고문진보강독			3	3	0	
			전통의례론			3	2	1	
			영작문연습			2	2	0	
			대순사회봉사Ⅳ			1	0	2	
3	1	전필	대순수도론	3	3	0			
		전선	세계사상사Ⅱ	3	3	0			
			대순신조론	3	3	0			
			역사산문강독	3	3	0			
			가정의례총론	3	2	1			
			영문독해연습	2	2	0			
			대순사회봉사Ⅴ	1	0	2			
	2	전필	한국사상사			3	3	0	
		전선	전경한문강론			3	3	0	
			대순목적론			3	3	0	
			철리산문강독			3	3	0	
			가정의례연습			3	2	1	
			실용영어회화			2	2	0	
			대순사회봉사Ⅵ			1	0	2	
4	1	전선	포덕교화론	3	3	0			
			삼교고전강독	3	3	0			
			국제예절론	3	2	1			
			대순실용영어Ⅰ	2	2	0			
			대순사회봉사Ⅶ	1	0	2			
	2	전선	대순종학특강			3	3	0	
			역대한시선독			3	3	0	
			대순실용영어Ⅱ			2	2	0	
			대순사회봉사Ⅷ			1	0	2	

〈표 5〉 대순종학과 교육과정(2012~2014)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전필	대순종학원론	3	3	0			
		한자, 한문입문	3	3	0			
		한국예의문화원론	3	3	0			
		수도교화실습 I	1	0	2			
		비전설계및상담 I	1	1	0			
	전필	대순신앙론				3	3	0
		수도교화실습 II				1	0	2
		비전설계및상담 II				1	1	0
	전선	초급한문				3	3	0
2	전필	전경교의론	3	3	0			
		수도교화실습 III	1	0	2			
		비전설계및상담 III	1	1	0			
	전선	구천상제론	3	3	0			
		중급한문	3	3	0			
		공동예절론	3	2	2			
	전필	대순종지론				3	3	0
		대순종단사				3	3	0
		수도교화실습 IV				1	0	2
		비전설계및상담 IV				1	1	0
	전선	세계사상사 I				3	3	0
		고문진보강독				3	3	0
		의례서식론				3	2	2
3	전필	수도교화실습 V	1	0	2			
		비전설계및상담 V	0	0	0			
	전선	대순수도론	3	3	0			
		세계사상사 II	3	3	0			
		대순신조론	3	3	0			
		역사산문강독	3	3	0			
		가정의례총론	3	2	2			
	전필	수도교화실습 VI				1	0	2
		비전설계및상담 VI				0	0	0
	전선	한국사상사				3	3	0
		전경한문강론				3	3	0
		대순목적론				3	3	0
		철리산문강독				3	3	0
		가정의례연습				3	2	2
4	전필	비전설계및상담 VII	0	0	0			
	전선	포덕교화론	3	3	0			
		삼교고전강독	3	3	0			
		국제예절론	3	2	2			
		수도교화실습 VII	1	0	2			
	전필	비전설계및상담 VIII				0	0	0
	전선	대순종학특강				3	3	0
		역대한시선독				3	3	0
		수도교화실습 VIII				1	0	2
	합계: 99학점		51	44	14	48	42	12

〈표 6〉 대순종학과 교육과정(2015)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전필	대순종학원론	3	3	0			
		한자,한문입문	3	3	0			
		한국예의문화원론	3	3	0			
		수도교화실습Ⅰ	1	0	2			
		비전설계및상담Ⅰ	1	1	0			
	전필	대순신앙론				3	3	0
		수도교화실습Ⅱ				1	0	2
		비전설계및상담Ⅱ				1	1	0
	전선	초급한문				3	3	0
2	전필	전경교의론	3	3	0			
		수도교화실습Ⅲ	1	0	2			
		비전설계및상담Ⅲ	1	1	0			
	전선	구천상제론	3	3	0			
		중급한문	3	3	0			
	전필	대순종지론				3	3	0
		대순종단사				3	3	0
		수도교화실습Ⅳ				1	0	2
		비전설계및상담Ⅳ				1	1	0
	전선	대순목적론				3	3	0
		고문·진보강독				3	3	0
		천지공사론				3	3	0
3	전필	수도교화실습Ⅴ	1	0	2			
		비전설계및상담Ⅴ	0	0	0			
	전선	대순수도론	3	3	0			
		세계사상사Ⅱ	3	3	0			
		대순신조론	3	3	0			
		역사산문강독	3	3	0			
		대순사회사업론	3	3	0			
	전필	수도교화실습Ⅵ				1	0	2
		비전설계및상담Ⅵ				0	0	0
	전선	한국사상사				3	3	0
		세계사상사Ⅰ				3	3	0
		전경한문강론				3	3	0
		철리산문강독				3	3	0
대순교화론		3				3	0	
4	전필	비전설계및상담Ⅶ	0	0	0			
	전선	삼교고전강독	3	3	0			
		수도교화실습Ⅶ	1	0	2			
		대순포덕론	3	3	0			
	전필	비전설계및상담Ⅷ				0	0	0
	전선	대순종학특강				3	3	0
		역대한시선독				3	3	0
		수도교화실습Ⅷ				1	0	2
합계: 93학점			45	41	8	48	44	8

<표 7>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과목 비율(%)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표1		표2		표3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표4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표5		표6	
	과목 수	비율	과목 수	비율	과목 수	비율		과목 수	비율		과목 수	비율	과목 수	비율
대순종학	26	70	15	48	15	48	대순종학	22	50	대순종학	20	44	23	53
							타종교 및 종교학	0	0	타종교 및 종교학	0	0	0	0
타종교 및 종교학	11	30	16	52	16	52	한문	8	18	한문	8	18	8	19
							사상	3	7	사상	3	7	3	7
							예절	7	16	예절	6	13	1	2
							영어	4	9	상답	8	18	8	19

이상에서 대순진리회의 종립학교인 대진대학교에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순종학과
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대순종학과는 1995년부터 몇 차례의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전체 교육과정 중 70%가
대순종학 관련 교과목이고 나머지 30%가 타종교 및 종교학관련 교과목이었다. 1998년부
터 2004년까지의 교육과정과 학부제가 시행된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타종교 및 종교
학 관련 교과목의 비중을 늘려 ‘대순종학’과 ‘종교일반’에 대한 균형 있는 종교교육이 실
시되었다. 그러나 두 전공의 심화발전을 목적으로 학과제로 변경된 2010년 이후의 대순종
학과 교과과정에서는 ‘대순종학’과 ‘종교일반’에 대한 균형이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단일학과제가 시행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체 교과과정 중 절반인 22과목을
대순종학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절반을 한문(8과목), 예절(7과목), 기타사상
(3과목), 영어(4과목)⁴⁴⁾으로 편성 하였다. 최초 학과설립부터 진행되어 왔던 타종교 및 종
교학 일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순
종학 관련 교과목이 20과목을 차지하고 타종교 및 종교학과 관련한 교과는 찾아볼 수 없
으며, 한문(8), 예절(6), 사상(3), 상답(8)⁴⁵⁾이 25과목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도 교육과정
은 2014년과 비교해 대순종학 교과목이 두 과목 늘었으며, 예절(1)이 다섯 과목 줄어들었
다. 타종교 및 종교학과 관련한 교과는 아직 개설되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교과과정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교과과정 중 절반을
차지하던 타종교 및 종교학 관련 교과목이 사라진 자리를 한문, 예절, 기타사상 등의 교
과가 차지하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물론 한문, 예절, 사상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44) 대순실용영어 두 과목을 합치면 영어 과목은 여섯 과목으로 늘어난다.

45) 대진대학교에서는 2012학년도부터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원만한 대학생활과 진로선택을 위해 대학기
두 차례씩 학생과 교수가 1:1로 비전설계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시간 외의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점은 1학점이다. 학생이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교수는 상담한 결
과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록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아니다. 그러나 종교학 일반 이론이나 타종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근시적 안목이나 종교적 편견들은 심각한 종교적 결핍을 초래한다. 종교가 빚어내는 모순과 갈등은 개인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종교 때문에 집단 간 반목과 불화가 계속되기도 하고 크게는 종교가 국가와 민족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⁴⁶⁾ 대순종학과를 개설한 목적이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의 원리를 교육이념에 적용하여 국가와 인류 평화에 기여할 교역자를 양성하는 것에 있다면 학부 교육과정에서 종교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종교일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종교와 타종교에 대한 균형 있는 종교관의 정립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균형 있는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문간의 교차나 학과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교문화학과의 교육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문화학과의 교육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종교문화학과(2010학년도)

학년	이수구분	교과번호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전필	071001	종교학	3	3	0			
	전선	072001	근대한국종교의전개	3	3	0			
	전선	072002	동양종교의이해				3	3	0
		072003	한국종교사상				3	3	0
2	전필	071002	종교문화론	3	3	0			
	전선	072004	불교사상사	3	3	0			
		072005	한국종교외문화유산	3	3	0			
		072006	샤머니즘의이해	3	3	0			
		072007	한국신종교론	3	3	0			
	전필	071003	종교사				3	3	0
	전선	072008	도교사상사				3	3	0
		072009	신화와종교문화				3	3	0
		072010	종교수행론				3	3	0
		072011	종교현상학				3	3	0
3	전필	071004	종교와윤리	3	3	0			
	전선	072012	종교심리학	3	3	0			
		072013	유교사상사	3	3	0			
		072014	종교철학특강	3	3	0			
		072015	종교와미디어	3	3	0			
	전선	072016	종교교육론				3	3	0
		072017	종교심리학				3	3	0
		072018	한국종교특강				3	3	0
		072019	기독교와이슬람				3	3	0
		072020	종교와의례				3	3	0

46) 오강남, 『종교란 무엇인가』(서울: 김영사, 2013), 5쪽.

4	전필	071005	동양종교문화특강	3	3	0			
	전선	072021	종교와예술	3	3	0			
		072022	종교와신비주의	3	3	0			
		072023	종교원전강독	3	3	0			
		072024	종교문화답사	3	1	4			
	전선	072025	현대종교와행정				3	3	0
		072026	민간신앙론				3	3	0
		072027	비교종교학				3	3	0
		072028	종교문화론				3	3	0
		072029	글쓰기와졸업논문지도				3	3	0
합계:102학점				51	49	4	51	51	0

〈표 9〉 종교문화학과(2015학년도)

학년	이수구분	교과번호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학점	강의	실습	학점	강의	실습
1	전필	071001	종교학	3	3	0			
		074001	비전설계상담Ⅰ	1	1	0			
	전선	072001	근대한국종교의전개	3	3	0			
		072005	한국종교와문화유산	3	3	0			
	전필	074002	비전설계상담Ⅱ				1	1	0
	전선	072002	동양종교의이해				3	3	0
		072020	종교와의례				3	3	0
		074013	한국종교의이해				3	3	0
2	전필	071002	종교문화론	3	3	0			
		074003	비전설계상담Ⅲ	1	1	0			
	전선	072004	불교사상사	3	3	0			
		072006	샤머니즘의이해	3	3	0			
		072007	한국신종교론	3	3	0			
		074014	종교심리와치유	3	3	0			
	전필	074004	비전설계상담Ⅳ				1	1	0
	전선	072008	도교사상사				3	3	0
		074015	종교사				3	3	0
		074016	요가명상과힐링				3	3	0
		074017	종교현상과현대사회				3	3	0
3	전필	074005	비전설계상담Ⅴ	0	0	0			
		074018	트라우마치유와종교윤리	3	3	0			
	전선	072012	종교사회학	3	3	0			
		072013	유교사상사	3	3	0			
		072014	종교철학특강	3	3	0			
	전필	074006	비전설계상담Ⅵ				0	0	0
	전선	072018	한국종교특강				3	3	0
		072031	종교교과교재및연구법				3	3	0
		074019	종교치유와카운셀링				3	3	0

4	전필	074007	비전설계상담Ⅶ	0	0	0			
		074009	종교문화특강	3	3	0			
	전선	072022	종교와신비주의	3	3	0			
		072023	종교원전강독	3	3	0			
		072030	종교교과교육론	3	3	0			
	전필	074008	비전설계상담Ⅷ				0	0	0
	전선	072024	종교문화답사				3	2	2
		072027	비교종교학				3	3	0
		072032	종교교과논리및논술				3	3	0
		074010	현대종교론				3	3	0
		074012	졸업논문및작품				3	3	0
합계:97학점				50	50	0	47	46	2

두 전공의 심화 발전을 목적으로 단일학과제로 전환된 첫 해인 2010년 종교문화학과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종교문화학부 당시의 교육과정을 큰 틀로 해서 대순종학전공 교육 과정이 빠진 자리를 종교와 관련한 다양한 학문영역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몇 차례 교과목 변경의 과정을 거쳐 2015년 현재는 종교일반과 종교문화 등 동서양 종교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상체계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하여 종교교육, 종교와 치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교 문화적 실천원리를 교수 학습하고 있다. 이상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평화에 기여할 창조적 지성인으로서의 종교문화 전문가와 새로운 문화적 가치체계를 창조하기 위해 균형 있는 종교 감각을 지닌 교양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순종학과 개설 목적이 해원상생의 원리를 교육이념에 적용하여 국가와 인류 평화에 기여할 교역자를 양성하는 것에 있다면 대순진리와 관련된 심화학습은 대순종학과에서 담당하고, 종교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종교 감각과 제종교에 대한 균형 있는 지식을 통한 올바른 종교관 형성은 종교문화학과에서 진행하는 학과간 협업을 통해 건전한 세계관과 종교관을 견지한 성숙한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제 7차 종교교육과정은 종교학적인 종교교육과 신앙적인 종교교육을 병행하던 기존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전자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제7차 종교교육과정은 종교의 의의나 종교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종교학적 설명을 좀 더 보강하였으며, 세계와 한국의 다양한 종교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종교학적 시각에서, 시대와 지역을 넘나드는 교차 문화적 비교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종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고, 종교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구체화하는 기회로 삼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⁴⁷⁾

47) 윤재근, 「중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제3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83쪽.

주지하다시피,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산하의 중등교육기관에서는 종교과 교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재 대진대학교에서 교수되고 있는 교양으로서의 종교관련 교과목은 대순종학과에서 주관하는 교양필수과목인 『대순사상의 이해』(1·2학기)와 종교문화학과에서 주관하는 교양선택과목인 『인간과 종교』(1학기)와 『인간과 신화』(2학기)가 있다.

교양교육이란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화된 새로운 정보사회에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며 학문계열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동질적인 내용을 교수하는 교육이다.⁴⁸⁾ 교양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공교육과는 달리 교양교육이 해당 학생의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 혹은 교양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⁴⁹⁾ 그런 의미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의 습득을 통한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진대학교에서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설치 운영 중인 『대순사상의 이해』는 2015학년도 1학기 현재 27개분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분반 당 정원은 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순사상의 이해』는 “본교의 건학이념에 비추어 대순사상의 종교적 의미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현대사회 및 종교문화에 있어 대순사상이 가지는 시사성을 제고하여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재검토하도록 한다.”⁵⁰⁾라는 교과목 개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교의 설립이념에 대한 이해가 교과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종교에 무관심한 현대 사회의 특성과 입시위주의 교육에 길들여진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본 교과목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는 않다고 하겠다. 그 결과 수업만족도와 참여도도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요즘말로 ‘영혼 없는 수업참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내용과 교육평가의 재편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교육평가와 관련해서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평가의 통일을 꾀하기 위해 모든 분반(평생미래학습부 1개 분반 제외)의 평가 문항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과 평가내용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문항은 통일되었지만 교수마다 상이한 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리의 이해를 묻는 문항에서 절반 이상의 문항이 한자표기를 요구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교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한자 외우기에 치중함으로써 교과목 개설의 취지와 평가의 통일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평가방법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공교육에서의

48) 손동현, 「인문교양교육의 의미와 과제」, 『인문과학』37권(서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220쪽.

49) 김태영, 「교양교육과 비판적 사고」, 『교양교육연구』제8권 제3호(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173쪽.

50) 2015학년도 대순사상의 이해 강의 계획서, 교과목 개요.

종교교육은 설립재단의 외적 팽창을 위한 대외적 선교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닌 대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현대사회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에 개별 종교전통에서의 종교교육은 종교의 보편적 진리와 각 종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전인적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⁵¹⁾

『대순사상의 이해』는 건학이념과 관련된 교책 과목으로서 교양필수 교과목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하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종교교육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순사상 일변도의 교과진행보다는 종교일반에 대한 이해와 타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와 종교문화에 있어 대순사상이 가지는 시사성을 다루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잠재적 종교인인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사상이나 분야에 편중된 교육에서 벗어나서 종교적 안목과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교사상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노출되느냐에 따라 그 종교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교수학습의 과정에 있어 교육자의 관점과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하여 자질향상을 꾀하고, 종교에 무관심한 학생들에게 건전한 종교관과 종교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양교육을 통해 건전한 종교관을 가진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는 포덕의 또 다른 전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교육자들이 『대순사상의 이해』를 통해서 종교인으로서 가져야하는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면 광의의 포덕인 셈이다.

IV. 현장에서의 종교교육과 새로운 비전

1. 개벽장으로서의 상제와 천지공사

종교란 본질적으로 ‘궁극적 실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각과 변화의 체험’이다.⁵²⁾ 궁극적 실재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절대자를 의미한다. 대순진리회에서의 궁극적 실재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이다. 『대

51) 윤재근,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제3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101쪽.

52) 오강남, 앞의 책, 105쪽.

순지침』에는 “강세하신 강증산께서 구천상제이심을 분명히 일깨워주어야 한다”⁵³⁾라고 명시한데서 알 수 있듯이 구천상제는 대순진리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조선 후기의 실존인물인 증산을 상제로 신앙하게 하는 근거가 ‘천지공사’이다. 삼계개벽으로 상징되는 우주적 질서의 재정립인 ‘천지공사’를 증산 스스로 행함으로써 최고의 신격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우주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천지공사’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우는 순서로 진행된다.⁵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부조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천지공사는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후천의 선경’을 건설한다는 명확한 지향성이 내재되어 있다. 참혹한 현실의 선천세계를 개혁을 통하여 후천의 이상세계로 변혁한다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천지공사를 대순사상의 핵심이라 이해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⁵⁵⁾

후천선경을 지향하는 천지공사는 한민족만의 평화와 안녕을 강조하는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바탕으로 전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사상이다. ‘판이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⁵⁶⁾ ‘여러 갈래의 문화의 정수를 뽑아’⁵⁷⁾ 후천의 기틀을 마련한 증산은 ‘천하가 한 집안’이 되는 통합적 세계관을 통해 후천을 경제적 안정과 평등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이상적 사회로 묘사하고 있다.

후천은 인류가 바라는 이상세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새로운 천지가 창조된 것과 같은 ‘개벽’이라고 설명한다.⁵⁸⁾ 천지공사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되는 개벽공사⁵⁹⁾는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선경을 여는’⁶⁰⁾ 증산의 종교행위이며 그것의 주재자라고 각성한 증산 자신이 ‘개벽장’의 지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다.⁶¹⁾

53)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 17쪽.

54) 『전경』, 공사 1장 3절. 본 논문의 논의는 증산 관련 전승기록 가운데 대순진리회의 『전경』(대순진리회 교무부,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을 기반으로 논의한다. 또한 이하 『전경』의 인용은 ‘편·장·절’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표기한다. 예를 들면 ‘『교법』 1장 1절’의 경우 ‘교법1-10’의 형식으로 그 전거를 밝힌다.

55) 김영주, 「증산 강일순의 신선사상」, 『철학·사상·문화』제10호(서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0), 99쪽.

56)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도(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13).

57)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예시12).

58) 이경원, 『대순종학원론』(서울: 문사철, 2013), 75쪽.

59) 「구년간 행하여 온 개벽공사를 천지에 확증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참관하고 확증을 마음에 굳게 새겨두라. 천리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명하리라. 상제께서 모든 종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별안간 천둥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공사3-38).

60) 공사3-38.

61) 그 삼계공사는 곧 천·지·인의 삼계를 개혁함이요 이 개벽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공사1-1).

개벽장은 표현 그대로 삼계의 대권을 가지고 비겁에 빠진 신명과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삼계를 개벽하는 최고신을 의미한다. 증산은 개벽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최고신으로서의 위격과 삼계를 개벽하는 권능을 보여준다. 여기서 다시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데 있다. 최고신으로서의 위격과 삼계 개벽이라는 권능을 가진 개벽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신명과 창생의 구제에 있는 것이다. 상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는 신앙인 개개인의 신념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상제를 단순히 기복의 대상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종교생활의 목적이 증산이 짜놓은 천지공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인적 인격을 지닌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수행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⁶²⁾

교육은 ‘인간형성의 계속적인 과정’으로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인간 삶의 한 양식이며 인간의 발달을 지향하고 인간 개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적 삶에 전체적으로 관계된다.⁶³⁾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대상에 관한 종교교육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게 하며, 신앙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수행과정에서 원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일신의 구원이 아닌 만민 화평(和平)을 지향하는 최고신이라는 인식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완성을 통한 화평의 세상이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이며 이를 위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각케 한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종교 본연에 충실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2. 해원상생의 실천으로서의 훈화와 인존

대내적 종교교육은 단순한 종교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하여금 내재된 종교심을 개현시켜 참된 종교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의도적 작업이다. 개별종단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참된 종교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84퍼센트가 종교인이라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이상세계는 요원해 지고 있으며, 종교와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 신뢰와 신념에서 시작된 신앙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인 듯하다. 이는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종교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은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 종교본연의 모습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 이어 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어져야 되는 일이라다(예시5).

62) 故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교법3-47).

63) 오만록, 『교육학개론』(서울: 형설출판사, 2005), 50-51쪽.

을 회복하는데서 비롯되며 실천적 지성을 통해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인존’이다. ‘후천의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해석되는 인존의 관념은 내재적 본래 심성을 회복하는 인간상으로 대순사상에 있어서 교육이념을 설정하는 기저가 된다.⁶⁴⁾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교법2-56).

인존은 인간을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천·지·인 삼계의 전체구조 속에서 인간이 자기완성을 통하여 삼계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인간상이다.⁶⁵⁾ 하늘과 땅보다 인간을 더 높이 좌정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⁶⁶⁾라고 하여 인간의 주체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존은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간을 존중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우주질서가 새롭게 전개되는 데 따른 의식구조의 개혁과 인식변화의 명제가 깔려 있다.⁶⁷⁾ 이와 함께 “인망(人望)을 얻어야 신망(神望)에 오른다”⁶⁸⁾라고 하여 선천에서는 모든 권력이 하늘로부터 왔지만, 후천에서는 그러한 권력이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인존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⁶⁹⁾ 인존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끊임없는 자기 수련을 통해 구현된다. 이처럼 인존의 실현은 선경이라는 궁극의 삶을 지향하는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를 근본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

인존은 천지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상이다. 그러므로 천지공사를 관통하는 원리인 해원상생의 원리 또한 인존의 인간 관념에 내재되어 있다. 해원이 맺혀 있던 원한을 풀어 이상적인 선경세상을 구현한다는 목적지향성의 개념이라면, 상생은 해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상생을 통해 해원은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원상생은 종단 대순진리회의 종지 중 전체를 대표하는 이념이며 신앙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실천이념이 된다.⁷⁰⁾ 이처럼 실천이념으로 강조되는 해원상생은 훈회를 통해서

64)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65쪽.

65) 김영주,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 『종교문화연구』제18호(경기도: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12), 165쪽.

66) 교법3-35.

67) 목적은 무자기(無自欺) - 정신 개벽(精神開闢), 지상 신선 실현(地上神仙實現) - 인간 개조(人間改造), 지상 천국 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 개벽(世界開闢)(교운2-32).

68) 교법1-25.

69) 김영주, 「증산 강일순의 신선사상」, 『철학·사상·문화』제10호(서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0), 101쪽.

실생활에서 발현된다. 훈회의 실천은 상제에 대한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며 인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대순진리를 수행하는 수도인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다.

훈회는 다섯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다.⁷¹⁾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2. 언덕을 잘 가지라., 3. 척을 짓지 말라.,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5. 남을 잘 되게 하라.”의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서로가 신뢰할 것이고, 언덕을 잘 가지므로 화목할 것이며, 척을 짓지 않는 데서 시비가 끊어질 것이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데서 배은망덕이 없을 것이며,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 이것이 인존사상이고 평화사상이다.⁷²⁾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自暴自棄)⁷³⁾인 만큼, 정직과 진실한 마음이 요구되며, 말은 마음의 소리인 바, 말을 좋게 하여 덕이 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⁷⁴⁾ 또한 척은 나에 대한 남의 원한이니, 곧 남으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⁷⁵⁾이므로 척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은의를 알고 그 은의에 보은하여야 하며 배은망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⁷⁶⁾

훈회의 실천은 상제에 대한 믿음의 실천이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되어야 신앙의 주체와 객체 사이가 동화되는 것이다. 훈회는 상제에 대한 믿음이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직접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덕목들이다. 훈회를 실천하는 생활을 통해 신앙인들은 종교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 실천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구현되고 신앙의 주체와 대상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존재가 인존인 셈이다. 윌리엄 제임스가 신앙을 ‘생산적 선택’이라고 말한 까닭은 믿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무관심과 불신 등의 태도에서 얻을 수 없는 가치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는 인존은 일상의 삶 속에서 동시통합적으로 구현되는 성질의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교육적으로 끊임없는 자기연수의 과정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인존의 인간 관념은 부단한 노력과 신앙의 본질을 실천하여 자신을 완성해 가는 인간형성이론⁷⁷⁾으로 ‘훈회의 실천’이라는 자력신앙을 전제로 단순히 자신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상제에 대한 믿음이 투영된 실천을 통해 종교적으로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교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종교인의 참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70) 김영주,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41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27쪽.

71) 김영주,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45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115-119쪽 참조.

72)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43쪽.

73) 위의 책, 42쪽.

74) 위의 책, 46쪽.

75) 위의 책, 19쪽.

76) 위의 책, 67쪽.

77) 윤재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이론-인존(人尊)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2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259쪽.

V. 나가며

얼마 전 방영된 ‘응답하라 1994’을 보면, 2014년 어느 날 저녁 1994년의 하숙집 동기들이 주인공의 집에서 모여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1999년 12월 31일 지구 종말’을 다룬 내용이 나온다. 실제로 1999년 12월 31일의 지구 종말론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때론 불안을 조성했고, 때로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조롱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구 종말은 오지 않았고, 결국 새로운 밀레니엄은 열렸으며, 시한부 종말론은 ‘역시’하며 또 다른 형태로 종교의 불신을 조장하였다. 이렇게 종교의 위기는 매 세기, 매 시기, 매 순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가 되었다.

종교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재의 종교가 위기이며, 이 위기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절절한 자기성찰이 필요함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종교의 위기는 종교의 위기인가 아니면 인간의 위기인가. 다시 말해, 종교가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인간 즉, 종교인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의미인가.

신앙한다는 것은 신앙인 스스로가 신과의 관계정립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의 종교는 복잡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안위를 추구하고자 이기주의의 길로 치닫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적응이라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신관의 정립이라든지 교리나 신앙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믿음’과 ‘구원’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현실에서 단순함을 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썩의 그릇된 종교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종교의 본질은 이타행 즉, 남을 잘되게 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일신의 구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인을 평안하게 해주는 만민화평에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따라 신앙의 성격 또한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는 조선 후기의 실존 인물인 증산을 구천상제로 신앙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신앙인에게 있어 증산은 우주 운행 원리를 재편한 천지공사를 주재한 인물로 이해되며 최고신으로 신앙된다.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는 천지인 삼계를 뜯어고치고, 새로 지어 만드는 것이므로 개혁장로서의 상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말 그대로 절대권능의 하느님인 것이다.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는 후천선경을 지향한다. 후천선경은 선천의 한계상황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으로 인류가 바라는 이상적인 환경이 구현되는 세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지공사는 인류사회에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는 증산의 평화사상을 잘 보여주는 대역사임에 분명하다.⁷⁸⁾

78)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여기서 인간과 최고신과의 관계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주질서를 재편하고 만민 평화를 추구하는 최고신이 일신의 복을 바라는 기복의 대상이기를 바라는 자의적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 신은 열심히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의 역사에 참여하여 실천을 통한 참된 종교인으로 거듭나서 남을 잘되게 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최고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될 때, 종교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참다운 종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종교에 대한 불신의 벽은 차츰 허물어 질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종교가 가지는 역할이 증대할 것이다. 그렇게 하였을 때 니체가 ‘죽인 신’은 우리 앞에 다시 부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참고문헌

- 『전경』
- 고남식, 「한국인의 정체성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16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 구득환,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 『종교교육학연구』제9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 _____, 「한국의 종단조직 고찰(1) - 불교(조계종), 원불교, 천도교, 유교」, 『종교교육학연구』제25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_____, 「한국의 종단조직 고찰(III) - 기독교한국침례회 · 구세군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종교교육학연구』제3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김순자, 「대순진리회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 『종교교육학연구』제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 _____, 「한국 전통가정교육과 대순사상」, 『종교교육학연구』제10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 _____, 「대순사상과 아동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30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김승남, 「성과 종교교육에 대한 대순진리회의 관점과 실제」, 『종교교육학연구』제42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김영주, 「증산 강일순의 신선사상」, 『철학 · 사상 · 문화』제10호, 서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0.
- _____,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 『종교문화연구』제18호, 경기도안: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2.
- _____,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41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_____,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제43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_____,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45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 김태영, 「교양교육과 비판적 사고」, 『교양교육연구』제8권 제3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
- 대진대학교 5년사 편찬위원회, 『대진대학교 5년사:1992-1997』, 경기포천: 대진대학교, 1997.
- 대진대학교 15년사 편찬위원회, 『대진대학교 15년사:1992-2007』, 경기포천: 대진대학교, 2007.
- 대진대학교 20년사 편찬위원회, 『대진대학교 20년사:1992-2012』, 경기포천: 대진대학교, 2012.
- 박선영 외, 『종교교육학연구』제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5.
- 박희봉, 「대순진리회 정치사상-서양정치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15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 손동현, 「인문교양교육의 의미와 과제」, 『인문과학』37권, 서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 오강남, 『종교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2013.
- 오만록, 『교육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5.
- 유승중, 「대순진리회와 청소년의 심성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5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

- 회, 1998.
- 윤기봉, 「대순사상의 종교학적 이해-개벽사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7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 _____, 「한국 신종교의 이상적 인간관」, 『종교교육학연구』제2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_____, 「증산의 수행체계에 있어 성·경의 의미」, 『종교교육학연구』제2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_____, 「증산 강일순의 인권사상」, 『종교교육학연구』제3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_____, 「증산사상에서의 근대성 해석문제 - 계급제도의 붕괴와 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3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사상」, 『종교교육학연구』제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 _____,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 _____,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 - 인존(人尊)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2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_____, 「대순사상에 있어 인간의 욕망에 관한 해석」, 『종교교육학연구』제3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_____, 「한국 신종교 개창자의 탄생설화와 종교문화」, 『종교교육학연구』제3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_____, 「한국 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 대순사상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3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_____,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종교교육학연구』제3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_____, 「다문화사회에 있어 상생을 위한 대순사상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제36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윤재근·김영주,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 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 『종교교육학연구』제46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 Michael Shermer, *The Believing Brain*, 김소희, 『믿음의 탄생』, 서울: 한국물가정보, 2014.
-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367>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673>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269>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618>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44>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599>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305>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655>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164>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02157175&code=960206

원고접수일: 2015년 6월 8일 심사일: 2015년 6월 24일 게재확정일: 2015년 7월 14일

연구자소개: 김영주

- ① 전공: 한국신종교, 한국철학 / 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 ② 관심영역: 한국신종교, 종교교육, 한국철학
- ③ 주요논저: 「증산 강일순의 신천사상」, 「다산 공부론에 있어서 주체성 확보문제」,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대순진리회 마음 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
의 종교교육」
- ④ E-mail: eureka0710@daejin.ac.kr

연구자소개: 윤재근

- ① 전공: 종교교육, 한국신종교사상 / 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 한국신종교사상
 - ③ 주요논저: 「종교와 인격」,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대순사상과 생태적 환경보존
의 문제」,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이론」, 「한국 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증산의 유교비판과 수용」
 - ④ E-mail: jkyoun@daejin.ac.kr
-

Abstract

New Vision for Religious Education of Daesoonjinrihoi

Kim, YeongJoo · Yun, JaeKeun

Daejin University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by Oxford university press showing that 84% of people all around the globe is related to organized religion proves the fact that now we are worthy of the name 'Homo religiosus'.

Every religion aims to achieve peaceful world. However, behind many bright features of religion remains religious conflict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rms. For this the disbelief of religion continues to arise. Although the demography shows the fact that 8 out of 10 people believe in religion, continuous rise of disbelief is enough to demand for reformation and introspection of every religion. Suggesting a new vision in terms of religion shows that religion is in critical situation and it must self-examine itself to reform itself.

This article aims to determine a new vision for Dae-Soon. This article, tries to figure out the new vision by analyzing the 'nature of religion'. It means that religions must stand for their true nature. Current status of religion has been modified too much from its original nature and thus is losing its true form. To accomplish this goal, the educative nature of Dae-Soon was revised in correlation to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in order to determine 'being faithful to the fundamentals', then it was applied to religious education in field.

The fundamental of religion is sacrifice, service, charity and sharing. In easy words it is 'to help others achieve more'. It is time that one must rightfully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the absolute being. One must sublimate oneself from believing in the absolute being for one's own benefit, as the absolute being is there to reorganize the order of cosmos. In this term, the correct belief is to understand the religious utopia, which the founder had sought for and that is the way that religion can recover its true form.

Key words: Daesoon Thoughts, Religious Education, Jeung-San, Sang-saeng(相生:living together), In-jon(人尊:the supreme being of person)